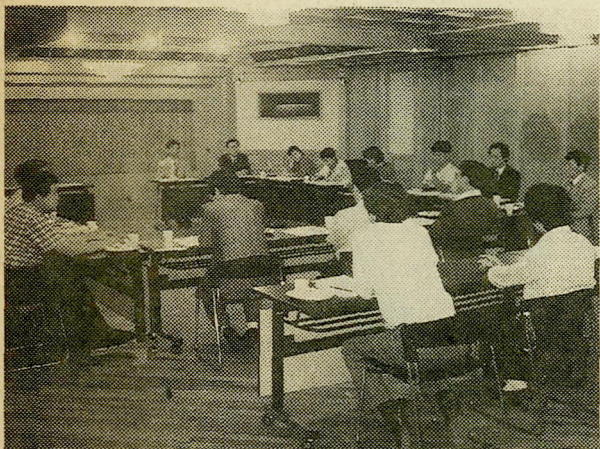


가정과 생활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새모임



이색단체인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탄생, 활동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숙생 가정」 가족들에게 비취지는 30~40대 직장남성의 모습. 대체로 이렇다. 한창 바쁘게 일할 나이로 바깥일에 파묻혀 살다보면, 마음과는 달리 가족들에게 소홀하기 일쑤. 자녀교육은 모두 아내의 몫으로 넘어가고 아이들의 기억속엔 잠자는 아빠의 모습만 남는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金寬玉) 30~40대의 평범한 아버지들이 아이들에 대해 평소 느끼는 미안한 마음을 더 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만든 이색모임이다.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등 1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임은 철저하게 여가시간으로 채워지는 한림대 문화운동소에서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행사와 사업의 융성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매달 「아버지라는 소식지」를 펴내 현대가족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아버지를 모색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꾀한다. 이밖에도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학용품 장난감 등을 어린이들의 정서에 알맞은 새로운 형태로 제작 보급해 나갈 계획

회사원 공무원 自營業者12명으로 구성 「下宿生-잠만자는 사람」 벗어나려 노력

소식지發刊...가족참여 건전행사 보급키로

한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康禹鉉소장(38)의 그림책 강좌에서 울었다. 글 그림에 전혀 무의미하였던 이들이 「아이를 위해 내손이

도 가지고 있다. 모임의 싹은 지난달 초 순열린 서울도서관의 특별코너 「아버지가 쓰고그린그림책 전시회」를 기획

로 원가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림화작가로도 이름을 올린 康소장으로부터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그림책 만드는 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모여 아이가 어떻고 그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쩔지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이에게 만화영화나 한편 보여주고 피자나 주는 것이 고작인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됐죠』

네살짜리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韓基天씨(35)은 예진병원(근무)은 외아들 누리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자칫 삭막하게 만들기 쉬운 기계문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인간본성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회원 張錫載씨(36·대림엔지니어링 근무)는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낸 우리 세대에겐 인생은 먹고사는 것에 다름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풍부한 의미를 전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3947. <高眞夏기자>